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순한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땐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 받았습니다. 교회는 압박에 시달리고 괴로움 받았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또한 어려움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설교본문 11절의 시작은 "그럼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5:10은 전부 다시 오실 주님의 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4-5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이자 환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절대적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겪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며, 모든 것들을 완벽히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 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는 방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란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시간에 감사하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슬픔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1에서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의 저주는 부서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몸과 영혼이 우리의 운명이란 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설교성경본문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8). 우리가 깨어있던 자고 있던 우리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0). 이것이 구원에 관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서로 오래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모두 기뻐합니다.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5).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란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문을 읽으라거나 우리에게 권장하는 삶의 습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의 지속적인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되신 그 분과 나누는 친교의 삶.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사역을 이루신 구원자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일들을 구하는 것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나누고, 그 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분과 함께 우리 삶의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기도는 모든 지식과 힘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산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강림을 통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지말고 기도하라"란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의식하라'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운에 맡겨진 사건들로 보입니다, 삶은 전부 운에 관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들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피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너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화목하셨다는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실체이며 가장 영화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의 작품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조차도,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을 때조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완전한 구원계획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토록 합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과, 시험들과, 유혹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던 하나님께서 그 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분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된 마음, 경외하는 마음, 믿고 신뢰하는 마음상태.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고 또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 삶 변두리 어느 곳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이 아닌 그들의 삶 중심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바탕에 이 믿음(범사에 감사하라)이 깔려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하나님을 아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